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중심으로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지 선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강 이

이 논문을 생활과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전공
김 지 선

김지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TV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개인미디어의 특성이 강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변인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 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출생 후부터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유아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돕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대인관계기술, 자기관리기술, 학습기술)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적극적 중재, 제한적 중재)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세 유아의 부모 139쌍과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

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기능적 리터러시에 비해 비판적 리터러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는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중재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관리 조절하는 수준이 높았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오래 사용할수록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낮아졌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를 통해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전반적인 양상과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중재하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부모의 역할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 스마트미디어, 미디어 중재,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적 유능
감

학 번 : 2016-21690

목 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1
II. 선행연구 고찰	9
1. 사회적 유능감	9
1)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	9
2)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12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	14
1)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15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17
3.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21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25
1. 연구문제	25
2. 용어의 정의	26
1) 사회적 유능감	26
2)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27
3) 미디어 리터러시	27
4) 스마트미디어 중재	28
IV. 연구방법 및 절차	29
1. 연구대상	29

2. 연구도구	35
1) 사회적 유능감	35
2)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관한 부모용 질문지	36
3. 연구절차	39
1) 예비조사	39
2) 본 조사	39
4. 자료분석	40
V. 연구결과 및 해석	42
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	42
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	42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43
2.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	45
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양상	45
2)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	46
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49
VI. 결론 및 논의	56
참고문헌	61
부록	77
Abstract	87

표 목 차

<표 IV-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0
<표 IV-2> 스마트미디어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33
<표 IV-3> 사회적 유능감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6
<표 IV-4>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 구성 및 신뢰도	38
<표 IV-5>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구성 및 신뢰도	39
<표 V-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	43
<표 V-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44
<표 V-3>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	46
<표 V-4>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점수	47
<표 V-5>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관계	50
<표 V-6> 연구모형의 적합도	52
<표 V-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54
<표 V-8> 경로모형의 효과분해	55

그 립 목 차

<그림 II-1> 가설모형	24
<그림 V-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51

부 록 목 차

<부록1> 어머니용 질문지	77
<부록2> 교사용 질문지	82

I. 문제제기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육아정책의 변화로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찍부터 기관 생활을 시작하는 영유아들은 오랜 시간 보육·교육 기관에서 또래 및 교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기관 내의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적응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사회적 유능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태영, 강문희, 2001)으로, 유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회적 유능감이 필요하다(Raver & Zigler, 1997). 유아기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초등학교 적응을 비롯한 이후의 성공과 적응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며, 견고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거나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초로 작용한다(Asher & Taylor, 1981; Walker & Hops, 1976).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감을 잘 발달시키지 못하면 학문적 성취가 낮고,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이 높을 뿐 아니라 비행행동이나 정신 건강의 문제, 반사회적 행동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다수의 보고(Cowen, Pederson, Babigan, Izzo, & Trost, 1973; Dodge, Coie, & Brakke, 1982; Loeber & Schmaling, 1985)를 통해 유아기 때의 사회적 유능감 수준은 이후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유아기는 긍정적인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Bierman & Montminy, 1993), 유아기의 경험은 성격과 가치관, 행동양상과도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기 때문에(이혜원, 양옥승, 2006; Guralnick, 1992)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특히 유아기에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앞둔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생애사적 사건인데, 보

육·교육기관과 초등학교는 분위기나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5세 유아들은 초등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 기대하거나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걱정을 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등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이경순, 2006).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앞둔 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학자들은 학교준비도의 개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학교준비도는 신체, 사회정서, 인지 영역을 포괄한 전 영역에서의 발달 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살펴보기 위해 채택한 검사 도구는 주로 학습능력 등의 인지적 발달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방소영, 2013)는 점에서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5세 유아의 발달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담임교사와 친구들과의 대인 관계를 가장 걱정스러워하며(이호분, 남정희, 2016),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Mashburn & Pianta, 2006).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잘 적응하는 지에 따라 이후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Duncan et al., 2007; Gutman, Sameroff, & Cole, 2003), 학교준비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아 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미디어 환경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가정 내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 매체 보유율은 100%에 가깝게 나타나며(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놀이 활동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미디어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가 1위를 차지하였다(조숙인, 권미경, 이민경, 2017). 출생 직후부터 TV와 컴퓨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휴대용 게임기 등 다양한 전자미디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생활하는 유아들의 미디어 경험은 그 이전 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전자미디어 매체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생활문화양식을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이제는 삶의 주된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노준석, 2003).

다양한 미디어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대표되는 스마트미디어는

인터넷 망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자녀가 스스로 조작할 수 있어 쉽게 흥미를 끄며(이정림 외, 2013), 교육현장에서 스마트 미디어를 토대로 한 ‘스마트 러닝’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영유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 비중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최근 3년간 유·아동 연령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는 보고를 통해, 유아의 현재와 앞으로의 삶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질 스마트미디어의 영향력에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공존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으로서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주목하며,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미디어에 노출되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 세대에 해당하는 유아의 각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언어 및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 신체 발달의 각 영역에서 유아의 미디어 사용경험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 사회적 영역에서는 특히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전자미디어를 오래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친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감 능력과 자기조절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김보라, 2018; Connors-Burrow, McKelvey, & Fussell, 2011; Zimmerman, Christakis, & Meltzoff, 2007).

하지만, 미디어경험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TV와 컴퓨터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이와는 특성이 다른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을 함께 살펴본 경우가 많았다.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컴퓨팅 기술, 그리고 휴대전화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융·복합 미디어인 스마트미디어(성은모, 2014; 성은모, 진성희, 2012)는 높은

이동성과 휴대성, 반응성, 그리고 상호작용 기능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또한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스마트미디어는 아동의 개별 욕구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며, 터치스크린 조작 방식으로 인해 TV나 컴퓨터 등에 비해 유아들의 사용이 훨씬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스마트미디어는 아동의 삶에 더 침투적이고(김환남 외, 2014; Christakis, 2014),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아들의 미디어 사용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유아들의 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스마트미디어에 한정해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삶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한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들의 미디어 사용시간과 관련해서 미국소아과협회(AAP)는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스크린 미디어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2~5세 유아의 경우에는 하루 사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나이가 어린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엄격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시간 현황은 이러한 지침과 거리가 멀다. 국내의 미디어 사용 실태조사(이정림 외,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들은 평일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의 경우에는 3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술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Connors-Burrow et al., 2011), 과도한 영상물 몰입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Zimmerman, et al., 2007), 또한 유아기의 빈번한 미디어 노출이 이후의 또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Hinkley et al., 2014)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시간 또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스마트미

디어 이용이 유아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존감, 사회성 등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바(김나리, 조준오, 2013; Verenikina & Kervin, 2011),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미디어 사용은 발달 단계 상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가정 내 미디어의 보유는 부모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도하는가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중재방식을 많이 다루고 있다.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Valkenburg, Krmar, Peeters, & Marseille, 1999),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행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Clark, 2011).

주로 TV매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와 간접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 그리고 공동 시청(co-viewing)으로 분류되어왔다(Nathanson, 2002). 적극적 중재는 부모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녀의 이해를 돕고 선별적인 콘텐츠의 이용을 유도하는 등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중재방식을 의미하고, 제한적 중재는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이나 사용 가능 시간대 등을 제한하는 등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한계를 정하는 중재방식이다. 그리고 공동 시청은 부모와 자녀가 TV 등의 미디어를 함께 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걸러내는 일종의 교육 수단 또는 방어기제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여겨졌다(안정임, 2008; Nathanson & Yang, 2003). 부모의 중재를 통해 자녀는 미디어를 통한 사회화를 경험하고 부모의 긍·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관점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Nikken & Schols, 2015; Strasburger & Wilson, 2002)는 점에

서, 미디어 중재 방식은 자녀의 미디어 경험과 직결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인터넷 위험성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고(이은미, 2002),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에 관여하며(김형지, 정세훈, 2015),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조안나, 고영자, 2013; Rasmussen et al., 2016) 유아 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현재 유아가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미디어는 화면 크기에 제한이 있어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기존의 공동이용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Hwang et al., 2017). 기본적으로 스마트미디어는 개인 미디어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 시청하는 TV 등의 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적용했던 중재 방식 중 특히 공동이용은 스마트미디어 사용경험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방식 중 공동이용을 제외하고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를 중심으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방식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유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국의 교육 단체(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에 의해 21세기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제시되며(Trilling & Fadel, 2009), 학자들에 의해 디지털 시대에서 성장하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필요하고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자 덕목으로 언급되고 있다(신하나, 정세훈, 2018). 국내에서도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를 통해 아동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5). 학자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하고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잘 다루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와 미디어를 분석, 평가, 비평할 수 있는 사고력과 미디어 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이해력을 포함하는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존에는 학교나 기관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왔다. 하지만 출생 후부터 미디어에 접하게 되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유아들은 기관 생활을 시작하기 전 이미 가정에서 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한다.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조연하, 배진아, 2010; Lynn, 2011),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미디어 경험을 논의할 때,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김은미, 2011; 신하나, 정세훈, 2018)는 극히 드물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Terras & Ramsay, 2016)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지 않거나(Lou, Shih, Liu, Guo, & Tseng, 2010), 반대로 인터넷 활용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 중재를 한다(안정임, 2008)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들의 미디어 중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방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어떠한 경로로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가 없는 바, 이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동의 제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의 영향력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는데, 이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유아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황영미, 문혁준, 2006),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아버지가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결과(Conrade & Ho, 2001; Pleck & Masciadrelli, 2004)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여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미디어 사용시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성차에 대한 보고가 일관되지 않다. 사회적 능력에서 여아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박연정, 정옥분, 2010; 이혜원, 양옥승, 2006; LaFreniere et al., 2002)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강현옥, 황혜원, 2013; 김지현, 정지나, 2011; 안라리, 2005)는 결과가 공존하며, 남아가 미디어를 더 오랜 시간 이용한다는 결과(임명희, 김성현, 2014)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이수기, 이현경, 홍혜경, 2014) 또한 공존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유아의 경험이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미디어 경험 관련요인으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선정하였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 그리고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라는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을 관리하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유능감

1)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인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 접근방법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고 있다. 동물행동학적 접근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진화론적 접근과 인성구조적 접근, 사회적 유능감을 동기로 보는 접근,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그것이다(이태영, 강문희 2001). 이 연구에서는 기관과 교실 상황에서 유아가 또래 및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맥락에 관심이 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정의한 대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우선 Katz와 McClellan(1997)은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함을 유지하는 능력,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사회적 유능감이라고 보았다. Rubin 등(1995)은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타인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내렸다. Guralnick(1990)은 사회적 유능감을 개인의 목표를 성공적이고 적절하게 설정하고 수행하는 아동의 능력으로 보았으며, 최경순(1993)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

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 및 유지하고,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해 나가는 능력을 사회적 유능감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유능감은 어느 단편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을 또래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기술, 정서조절 능력, 인지능력, 학습기술 등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이태영, 강문희, 2001; 이혜원, 양옥승, 2006; Katz & McClellan, 1997; Walter & LaFreniere, 2000). 학자들마다 사회적 유능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앞둔 5세 유아에게 중요한 요소로 대인관계기술과 자기관리기술, 학업기술을 꼽을 수 있다.

대인관계기술은 유아가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다(이혜원, 양옥승, 2006). 또래집단은 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으로 또래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유아의 기관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개인적인 능력은 유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근거이기도 하다(Birch & Ladd, 1997). 교사 또한 유아와 기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대상으로, 유아와 교사 간 긍정적인 관계는 유아가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정서적, 행동적으로 유능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ianta, 1999). 유아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후의 학교적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정대현, 지성애, 2006) 유아가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은 사회적 유능감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기관리(self - management)는 자기조절(self - regulation), 자기통제(self - control)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Gruse & Lytton, 1988), 유아 스

스로 자신의 기능과 상태를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Baumeister, Vohs, & Tice, 2007). 좀 더 구체적으로, 유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사고나 감정, 행동의 균형을 맞추고 만족지연, 충동억제, 요구에 대한 순응 등의 다양한 전략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박혜림, 이진희, 2014). 유아는 기관에서 또래 및 교사와 생활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자기관리능력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활동에서 협동적이고, 인내심이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Funder & Block, 1983), 자기관리능력이 낮은 유아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정서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Kochanska & Aksan, 1995). 때문에 유아가 한 구성원으로 기관에 잘 적응하는 데에 자기관리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기술은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이자 지식 습득이나 기능 학습을 돕는 기술이다(McDermott, Gree, Francis, & Scott, 2000). 유아가 교사의 지시를 듣고 따르거나 집단 활동에 적절히 참여하고 집중하여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이 포함된다(곽아정, 2006). 이러한 기술은 유아가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초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후에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초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 있다(McClelland, Acock, & Morrison, 2006).

유아기는 어떤 발달 단계보다도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유아기의 경험은 그들의 성격과 가치관, 행동양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이혜원, 양옥승, 2006; Guralnick, 1992)는 점에서 유아기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중에도 5세는 사회적 유능감의 핵심요인인 자기조절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학습의 최적 시기이며(Vygotsky, 1978), 유아교육기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앞두고 있는 연령으로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수준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상을 5세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가정 내적인 요인과 가정 외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 내적인 요인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등이 있다(강수경, 김민정, 정미라, 2015; 김종훈, 성지현, 2014; 임현주, 2017). 가정은 유아가 출생 후 처음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화를 배워가는 장소이다. 때문에 부모가 어떤 양육태도를 갖고 자녀를 대하는 지에 따라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달라진다(Baumrind, 1967; Schaefer, 1959). 특히 초기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구순주, 최보가, 1996), 어머니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관되게 자녀를 지도하면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Belsky, 1984). 어머니의 언어 통제 방식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등(남연정, 김희태, 2014)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증가 등 현대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유아발달에 관여하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황영미, 문혁준, 2006). 기존의 경제적 부양만 책임지는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새로운 모습의 양성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김지원, 김낙홍, 2011). 아버지는 어머니 못지않게 유아의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성역할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Pleck & Masciadrelli, 2004),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박수연, 2013; Conrade & Ho, 200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살펴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외적인 요인으로 미디어 환경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놀이 활동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미디어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가 1위를 차지한 만큼(조숙인 외, 2017), 유아들의 삶에 미디어가 깊게 침투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V와 컴퓨터로 대표되던 미디어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스마트폰이 개발,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이어서 각종 태블릿 PC와 휴대용 게임기 등이 가정에 보급되면서 유아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아의 미디어 사용 및 노출은 유아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방해하면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가 장시간 TV에 노출되면 주 양육자와 언어 및 놀이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호작용에 방해가 받게 되면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rkorian et al., 2009)는 연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최근 부모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녀에게 많이 허용하는 상호작용적인 미디어는 구체적인 지식을 얻는데는 유용하지만, 자기조절능력이나 사회적인 기술, 문제해결 능력 등은 자연 환경을 탐색하고 또래 및 양육자와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길러지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Radesky, Schumacher, & Zuckerman, 2015).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의 경우, 미디어 환경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양육자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적인 경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아에게 처음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접하게 한 사람은 대부분 부모였으며, 부모의 지도와 허용정도에 따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김민석, 문혁준, 2015; 박소영, 문혁준, 2015; 이정림 외, 2013). 또한 학자들은 자녀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의 부모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oseberry, Hirsh-Pasek, & Golinkoff, 2014).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모바일이나 상호작용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배움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모가 미디어를 어느 정도로 다룰 수 있는지, 즉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부모의 미디어 가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인터넷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는 방법이 다르다(안정임, 2008)는 연구나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 숙련도에 부모의 인터넷 사용행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박소라, 2005)는 연구결과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 경험에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미디어 환경뿐 아니라 가정 내 부모 변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서 성차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권희경, 2009; 이은정, 2008; 이혜원, 양옥승, 2006; LaFrenere et al., 2002)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김지현, 정지나, 2011; 안라리, 2005)는 연구결과가 모두 보고되고 있다. 과도한 전자매체 사용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박정아, 현은자, 2018)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

스마트미디어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컴퓨팅 기술, 그리고 휴대전화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융·복합 미디어를 의미한다(성은모, 2014; 성은모, 진성희, 2012).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사용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능동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과학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매체 간 고유한 기능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융합 기능을 가진 스마트미디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성은모, 2015). 스마트미디어는 통칭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의미하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2009년 아이폰 3G 모

텔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태블릿 PC 또한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생활 속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는 이동이 편리하며 휴대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구별된다. 또한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등 개별 욕구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다(김환남 외, 2014)는 것 또한 스마트미디어만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터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 유아의 흥미를 끄는 등 스마트미디어는 일종의 베이비시터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권연정, 2014).

이처럼 유아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의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유아들이 스마트미디어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노출이 되는지 사용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출은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중재 방식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

1)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국내의 미디어 사용 실태조사(이정림 외, 2013)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의 사용률은 컴퓨터 사용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주중 31분, 주말 40분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42분(Lauricella, Wartella, & Rideout, 2015), 1.91시간(김보라, 2018)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구 대상의 40%가 넘는 유아들이 매일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었다(류미향, 2014)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있어서 유아의 개인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소아과협회(AAP)의 권고에 따르면, 2~5세 연령의 유아는 하루 미

디어 사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걱정하지만 실태조사에서 전체 미디어 중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간만 1시간 가까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유아의 사회적 영역의 발달에 필요한 여러 활동의 기회를 대체함으로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자들은 유아가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보내는 시간만큼 신체적, 사회적, 학습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들거나, 과도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주변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기회를 대체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Neuman, 1995; Radesky et al., 2015). 게임 몰입도가 낮은 유아들이 대인관계가 좋으며 또래와 어울리길 좋아한다(구희정, 2013)는 연구결과나 미디어 노출이 잦을수록 추후 정서발달과 또래 관계에 문제를 겪는다(Hinkley et al., 2014)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아가 나누기, 협동하기, 칭찬하기 등 또래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술이 낮아졌다(Connors-Burrow et al., 2011)는 연구결과와 게임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이 낮아졌다(Prot et al., 2014)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사회성 발달간의 관련성에 대해 예상해볼 수 있다.

언어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대인관계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언어 발달은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2008). 과도한 영상물 몰입과 미디어에의 노출은 유아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은 언어 정보를 접하게 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을 저해시킨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Nigg, 2006; Zimmerman et al., 2007),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유아가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도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언어발달의 결핍은 자기조절 강화를 방해하기 때문에(Jensen et al., 1997), 자기조절 능력이 중요한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자기조절

력을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서희, 황성운, 2017)는 연구결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의 경우, TV 등의 전통적 미디어와는 달리 개인 미디어의 특성이 강하고 상호작용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학습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성민, 2010; 손경희, 이대균, 2001), 스마트미디어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홍수민, 2011; Kucirkova, 2014)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학습을 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21세기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환경에서 개별화된 학습을 받을 수 있다(Shuler, 2009). 이에 스마트미디어에 한정해서 미디어 사용시간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1) 미디어 중재

학자들은 초기 미디어인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 경험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모 중재(parental mediation)라고 정의내렸다(Clark, 2011).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Valkenburg et al., 1999). 부모중재 행위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걸러내는 일종의 교육 수단 혹은 방어기제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는데(Nathanson & Yang, 2003),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중재 역할을 크게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 그리고 공동 시청(co-viewing)으로 분류했다(Nathanson, 1998, 1999; Valkenburg et al., 1999; Eastin et al., 2006). 적극적 중재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콘텐츠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적 중재는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 규칙을 정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 시청은 자녀와 단순히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미디어인 텔레비전과는 특성을 달리하는 인터넷, 비디오 게임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은 자녀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할 때 부모가 어떤 중재방식을 사용하는 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자녀가 비디오 게임을 할 때에 부모가 보이는 중재 방식을 적극적 중재, 제한적 중재, 공동 사용(co-playing)으로 나누기도 하였고(Nikken & Jansz, 2006),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 부모의 행동 방식을 적극적 공동 이용(active co-use), 상호작용적 제한(interaction restrictions), 기술적 제한(technical restrictions), 감독(monitoring)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Livingstone & Helsper, 2008).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미디어 경험에 미친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는 자녀의 TV 시청 시간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Komaya & Bowyer, 2000), 부모가 제한적 중재를 할 경우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줄어들고 미디어로 부적절한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 줄었다(Collier et al., 2016)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동 시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재행위가 TV 노출을 감소시킨다는 통념에 반해, 공동 시청은 TV 사용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중재행위라기 보다는 일종의 시청행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안정임, 2003; Nathanson, 2001).

스마트폰과 같이 화면 크기에 제한이 있는 개인 미디어에서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함께 공유하는 미디어와 관련된 공동 이용 중재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Hwang et al., 2017). 때문에 스마트미디어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공동 이용을 제외한 부모의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의 영향을 많이 살펴보고 있었다.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고 중재 수준이 낮을수록 금단 및 내성, 생활 및 행동장애, 집착과 같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지수는 높게 나타났으며(김환남 외, 2014), 어머니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적극적 중

재와 방임을 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몰입이 높게 나타났다(남경희, 2018).

미디어 중재에서 부모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로는 자녀의 TV시청에서 어머니의 관여도가 아버지보다 높았다(Van der Voort et al., 1992)는 일부 연구결과만 존재하여, 관련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김지원, 김낙홍, 2011; 이해경, 2007),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다(Conrade & Ho, 2001; Parke, 2002)는 선행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부모의 양육 역할을 살펴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TV등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유아들이 많이 사용하고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는 전통적 미디어와는 특성을 달리 한다. 높은 이동성과 휴대성, 개인 미디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모는 가정 내에서 뿐 아니라 식당이나 이동하는 차 안 등 다양한 곳에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자녀를 마주한다. 하지만,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아버지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며,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 및 제한적 중재는 어떤 양상을 보이며, 부모의 중재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미디어 리터러시

발달 단계 상 유아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기 때문에, 부모가 미디어를 어느 정도로 능숙하게 다루며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는 자녀의 미디어 경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학자들은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확대하는 능력(Davis, 1993)이나 여러 유형의 미디어에 접속, 분석,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Aufderheider, 1993)으로 정의내렸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확한 개념과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합의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요인으로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와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를 말할 수 있다(Livingstone, 2009; Potter, 2002).

기능적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이해하며 기능적으로 잘 다루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한편, 비판적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분석, 평가, 비평할 수 있는 사고력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에 담긴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 미디어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을 말한다(Chen et al., 2011). 출생 후부터 미디어에 노출되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는 부모를 통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미디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이용 행태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조연하, 배진아, 2010).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기술(Terras & Ramsay, 2016)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녀의 미디어 경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감소하였으며(신하나, 정세훈, 2018), 초등학생 어머니의 스마트폰 리터러시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쳤다(임인택, 이선미,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숙련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모의 인터넷 이용행태(박소라, 2005)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또한 기능적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는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더 많이 걱정하며 자녀가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기도 하고(Lou et al., 2010), 부모의 인터넷 리터러시 능력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이용 지도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안정임, 2008).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미치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부모 변인의 주 응답 대상인 경우가 많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대 아버지의 양육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영란, 주재선, 김난주, 최진희, 2015). 유아가 가정에서 주로 미디어를 사용하며(이정림 외, 2013), 다양한 종류의 놀이 중 미디어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를 제일 선호한다(조숙인 외, 2017)는 점에서, 아버지 또한 자녀의 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온라인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Kaynany & Yelsma, 2000)는 점에서, 아버지가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잘 다루고 콘텐츠를 이해, 분석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머니와는 다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모두 살펴보려고 한다.

3.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사회적 유능감은 유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교사 및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며 이후의 성공과 적응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유능감은 초등학교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또래 및 교사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유아의 미디어 경험과 부모 역할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영향이나 가정 내 스마트미디어 관련 부모 역할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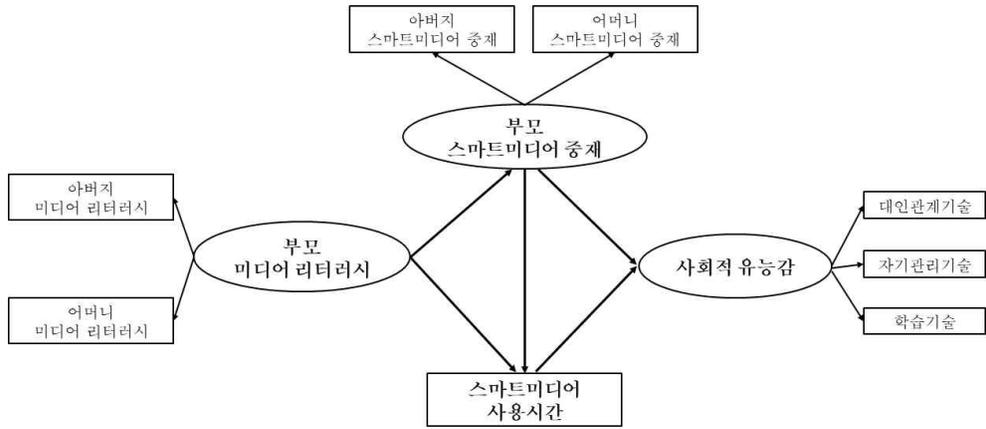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유아들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만큼 신체, 사회, 학습 등 다른 영역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Neuman, 1995), 또래 간에 상호작용이 적고, 자기조절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등(Conners-Burrow et al., 2011) 미디어 사용시간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유아의 미디어 경험에서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양적인 측면과 함께 부모가 미디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용에 제한을 두는 등의 행동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지수와 미디어 사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환남 외, 2014; Collier et al., 2016)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거나(조안나, 고영자, 2013; Valkenburg et al., 2013) 아동의 낮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Collier et al., 2016)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관해서는, 기능적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인 경우 자녀의 성장에서 인터넷 활용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동행형 중재 행위를 보이기도 하며(안정임, 2008), 비판적 리터러시는 부모의 적극적 중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Rasmussen et al., 2016)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는 부모 중재를 통해서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조연하, 배진아, 2010)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TV 등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성격이 다른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높은 휴대성과 개별성, 상호작용 기능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아동의 삶에 더 침투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적용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관련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더욱 드물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모두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가설모형은 <그림 II-1>과 같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정적인 영향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그림 II-1> 가설모형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와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한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은 어떠한가?

1-1.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대인관계기술, 자기관리기술, 학습기술)의 양상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5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은 어떠한가?

2-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의 양상은 어떠한가?

2-2.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적극적 중재, 제한적 중재)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이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망 내에서 잘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Raver & Zigler, 1997).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이혜원, 양옥승, 2006; Baumeister, Vohs, & Tice, 2007; McDermott et al., 2000), 대인관계기술, 자기관리기술, 학습기술을 포함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정의한다. 대인관계기술은 교실 상황에서 유아가 타인의 감정을 수용 및 이해하고 또래 및 교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관리기술은 교실의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학습기술은 학습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지시를 듣고 따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기관 및 교실환경에서 유아가 규준을 이해하는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고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2)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스마트미디어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컴퓨팅 기술, 그리고 휴대전화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융·복합 미디어(성은모, 2014; 성은모, 진성희, 2012)로, 구체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한정된다.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유아가 주중 또는 주말에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유아가 주중 또는 주말의 하루 동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한 평균 시간으로 정의된다.

3)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여러 유형의 미디어에 접속, 분석, 평가할 수 있고 미디어를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ufderheider, 1993). 선행연구(Chen et al., 2011)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디지털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능적 리터러시와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한다. 기능적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기능적으로 잘 다루며 콘텐츠를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분석, 평가, 비평할 수 있는 사고력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이해력을 포함하는 능력을 말한다.

4) 스마트미디어 중재

미디어 중재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을 관리하거나 조절,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Nathanson, 2002; Livingstone & Helsper, 2008).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적극적 중재는 부모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에 대한 자녀의 이해를 돕고 선별적인 콘텐츠의 사용을 유도하며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중재를 의미한다. 제한적 중재는 자녀가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이나 사용 가능 시간대를 제한하는 등 사용에 한계를 정하는 방식의 중재를 의미한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대상의 선정과 연구도구의 구성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관계를 밝히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구, 경북, 제주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6곳의 5세 유아의 부모 145쌍과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6쌍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유아 139명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 139명, 교사 23명을 포함한 총 3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이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1902/003-008). 연구대상 유아 139명 중 남자는 67명, 여자는 72명이었고, 평균 월령은 70.6개월(범위: 64~76개월)이었다. 부모가 응답한 질문지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유아, 어머니, 아버지, 해당 가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73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43명(30.9%), 셋째 이상이 18명(12.9%)이었다. 유아가 기관에 재원 중인 기간은 '4년 이상'이 76명(54.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3년 이상 4년

미만' 31명(22.3%), '2년 이상 3년 미만' 16명(11.5%)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41세(범위 : 30~51세)였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8세(범위 : 27~51세)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2, 3년제 대학 졸업이 49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 40명(28.8%),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명(23%), 대학원 재학 이상 15명(10.8%)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2, 3년제 대학 졸업이 50명(36%)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 41명(29.5%),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명(23%), 대학원 재학 이상 13명(9.4%)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40명(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500만원' 37명(26.6%), '500만원~600만원' 24명(17.3%), '300만원~400만원' 19명(13.7%), '300만원 미만' 17명(12.3%)의 순서로 뒤를 이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보였다.

<표 IV-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유아	출생순위	첫째	73(52.5)
		둘째	43(30.9)
		셋째 이상	18(12.9)
		무응답	5(3.6)
	재원기간	1년 미만	0(0.0)
		1년~2년 미만	12(8.6)
		2년~3년 미만	16(11.5)
		3년~4년 미만	31(22.3)
		4년 이상	76(54.7)
		무응답	4(2.9)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23.0)
		2, 3년제 대학 졸업	49(35.3)
		4년제 대학교 졸업	40(28.8)
		대학원 재학 이상	15(10.8)

		무응답	3(2.2)
		전문기술직	38(27.3)
		사무관리직	40(28.8)
		판매서비스직	5(3.6)
	직업	생산노동직	11(7.9)
		자영업	29(20.9)
		전업주부	0(0.0)
		기타	14(10.1)
		무응답	2(1.4)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23)
	교육수준	2, 3년제 대학 졸업	50(36.0)
		4년제 대학교 졸업	41(29.5)
		대학원 재학 이상	13(9.4)
		무응답	3(2.2)
어머니		전문기술직	18(12.9)
		사무관리직	19(13.7)
		판매서비스직	7(5.0)
	직업	생산노동직	7(5.0)
		자영업	11(7.9)
		전업주부	55(39.6)
		기타	20(14.4)
		무응답	2(1.4)
		300만원 미만	17(12.3)
		300만원 ~ 400만원	19(13.7)
		400만원 ~ 500만원	37(26.6)
	월평균 소득	500만원 ~ 600만원	24(17.3)
		600만원 이상	40(28.8)
		무응답	2(1.4)

부모가 작성한 질문지를 통해 연구대상 유아의 전반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 실태 또한 수집하였다.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13-24개월’이 43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만 3세’ 34명(24.5%), ‘25~36개월’ 30명(21.6%), ‘만 4세’ 21명(15.1%), ‘12개월 이하’ 7명(5%),

‘만 5세’ 4명(2.9%) 순으로 높았다. 이는 유아들이 생후 2~3년 사이에 스마트미디어를 많이 접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최근 1개월 동안 스마트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가에 대한 문항에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46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 36명(25.9%), ‘일주일에 3~4회’ 35명(25.2%), ‘일주일에 5~6회’ 13명(9.4%), ‘한 달에 1~2회’ 9명(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아의 절반가량이 일주일에 스마트미디어를 3~4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가 스마트미디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유아(73.4%)가 가족에게 허용 여부를 묻고 허락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했으며, 가족이 전적으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는 15.8%, 자녀가 자유롭게 스마트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는 1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혼자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혼자 사용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82명(59%), 다른 사람(부모, 형제, 친구 등)과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57명(41%)으로, 절반이 넘는 유아가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평일에 스마트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는 하원 후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부모가 88명(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에 관계치 않고 때때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17명(12.2%), 등원 준비 시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11명(7.9%), 식사 중에 사용한다는 응답과 잠자기 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모두 5명(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평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원한 후 잠자기 전까지의 여가시간에 주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를 묻는 응답에는 자녀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0%에 가까웠고, 카페 또는 식당 등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은 15.1%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조부모, 친구 등)의 집이나 백화점·마트·쇼핑몰, 개인용 승용차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녀에게 방해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27명(19.4%), ‘자녀를 달래기 위해서’ 17명(12.2%) 순으로 높았다. 기타 항목에는 ‘자녀가 원해서’, ‘약속을 지켜서 보상으로’, ‘장난감이 많지 않아서’ 등의 응답이 포함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연구대상의 절반이 넘는 부모가 주로 자녀를 달래거나 돌봄을 대신하는 등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튜브 등의 ‘영상 시청’이 소범주 중 62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용 콘텐츠’ 22명(15.8%), ‘만화’ 21명(15.1%) 순으로 높았다. ‘자료 및 정보 획득’이나 ‘여가’, ‘커뮤니케이션’, ‘교육/학습’ 의 대범주 중에서는 여가를 보내는 수단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응답이 8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IV-2> 스마트미디어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빈도
자료 및 정보 획득	1) 검색	1(0.7%)
	2) 일반적인 웹서핑	0(0.0%)
	3) 카메라, 사진첩	7(5.0%)
여가	4) 게임	19(13.7%)
	5) 만화	21(15.1%)
	6) 영화	0(0.0%)
	7) TV프로그램(DMB)	3(2.2%)
	8) 음악(노래)	3(2.2%)
	9) 영상시청(유튜브 등)	62(44.6%)
커뮤니 케이션	10)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등)	0(0.0%)
	11)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0(0.0%)

	12) 커뮤니티(카페·클럽)	0(0.0%)
교육/학습	13) 교육용 콘텐츠	22(15.8%)
	무응답	1(0.7%)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도구 구성과 절차,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유능감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Merrell(1993)이 개발한 School Social Behavior Scale(SSBS)의 일부 문항을 변안한 뒤, 연구 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SBS는 총 65문항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묻는 3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대인관계기술(Interpersonal Skills) 14문항, 자기관리기술(Self-Management Skills) 10문항, 학습기술(Academic Skills)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기술에는 ‘다른 친구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이해한다’, ‘자신이 하는 활동에 친구들을 잘 초대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관리기술에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대응한다’, ‘교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학습기술은 ‘교사의 지시를 잘 듣고 따른다’, ‘필요할 때 교사와 친구에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변안은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하는 교포대학원생이 함께 번역, 재번역 과정을 거쳤으며, 아동학 박사 1명과 아동학 전공교수 1명,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검토 의뢰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에 대해 아동학 박사 2인과 교수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척도의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IV-3>에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화하여 1~5점의 범위를 가진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하위영역별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능감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기술의 신뢰도 계수는 .94였으며, 자기관리기술의 신뢰도 계수는 .94, 학습기술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표 IV-3> 사회적 유능감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대인관계기술	4, 5, 6, 9, 11, 19, 21, 22, 25, 26, 28, 29, 30, 32	14	.94
자기관리기술	1, 7, 12, 15, 16, 17, 23, 24, 27, 31	10	.94
학습기술	2, 3, 8, 10, 13, 14, 18, 20	8	.88
사회적 유능감		32	.97

2)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관한 부모용 질문지

(1)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부모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각각 나누어 개방형으로 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 때 수집된 시간 자료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 국내외 선행연구(구현영, 김은정, 2015; Bickham et al., 2015; Connors-Burrow et al., 2011)에서 평일과 주말 사용시간의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계산한 방법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

에서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평일 일일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다섯 배와 주말 일일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두 배를 합하여 주간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여 하루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산출하였다.

(2)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Koc & Barut, 2016)에서 사용한 문항 중 일부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도구는 부모의 미디어 사용 관련 기술과 미디어 관련 이해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적 리터러시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가진 서로 다른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콘텐츠가 믿을 만한지, 그리고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기능적 리터러시 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5(아버지 .96, 어머니 .91)였고, 비판적 리터러시 7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6(아버지 .97, 어머니 .94)이었다.

<표 IV-4>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기능적 리터러시	1, 2, 3, 4, 5, 6, 7, 8	8	.95
비판적 리터러시	9, 10, 11, 12, 13, 14, 15	7	.96
미디어 리터러시		15	.97

(3)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관리 조절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재에 관한 문항은 부모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스마트미디어 중재 질문 문항은 선행연구(Hwang et al., 2017; Livingstone & Helsper, 2008; Shin & Lwin, 2017)에서 사용한 문항 중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부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도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재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 중재는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해준다’, ‘자녀에게 특정한 콘텐츠가 왜 좋은지 설명해준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한적 중재는 ‘자녀에게 정해진 시간 이상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 못하게 한다’, ‘자녀가 특정한 콘텐츠는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

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적극적 중재 6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3(아버지 .84, 어머니 .76)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적 중재 7문항의 신뢰도 계수도 .83(아버지 .78, 어머니 .71)으로 나타났다.

<표 IV-5>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적극적 중재	1, 2, 3, 4, 5, 6	6	.83
제한적 중재	7, 8, 9, 10, 11, 12, 13	7	.83
스마트미디어 중재		13	.89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고 질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어머니 3명과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에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5~7분이었으며, 교사용 질문지에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4~5분이었다. 어머니와 교사가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정사항 없이 질문지를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9년 4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구, 경북, 제주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6곳에서 5세 학급에 재원 중인 아동 145명의 부모와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기관장의 동의를 얻었으며, 기관장의 동의가 획득된 경우에 한하여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설명서와 동의서, 질문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부모에 한하여,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각 기관에서 2~4주에 걸쳐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145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139부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t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부모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함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와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¹⁾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χ^2 값과 함께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SEA, 상대적합지수(relative fit index)인 TLI, CFI 등을 사용하였다. RMSEA값은 .05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05~.08 사이면 적합한 적합도로,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로 간주한다(Browne & Cudeck, 1993). TLI와 CFI의 경우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다섯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간 간접 효과가 유의한지 검토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1)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검증하려는 이론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추정 오차(estimation error)가 커져서 추정된 미지수의 값을 신뢰할 수 없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3). 표본의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모형에서 추정하는 미지수의 5~10배(Bentler & Chou, 1987), 15배(Stevens, 1996)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은 8개로 Stevens(1996)의 기준에 따르면 최소 120개 정도의 표본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139개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위의 연구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술하며,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연구문제1)

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V-1>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총 점수범위는 1~5점이다.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 점수는 3.9점($SD = .67$)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기술의 평균 점수는 3.85점($SD = .69$), 자기관리기술은 3.85점($SD = .72$), 학습기술은 4.07점($SD = .73$)으로 학습기술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아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영역인 대인관계기술과 자기관리기술, 학습기술에서 모두 점수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지현, 정지나, 2011; 안라리,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유아의 성별을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V-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

	성별	<i>N</i>	<i>M (SD)</i>
대인관계기술	남아	67	3.82(.70)
	여아	72	3.87(.68)
	전체	139	3.85(.69)
자기관리기술	남아	67	3.76(.73)
	여아	72	3.93(.70)
	전체	139	3.85(.72)
학습기술	남아	67	4.01(.73)
	여아	72	4.12(.74)
	전체	139	4.07(.73)
전체	남아	67	3.85(.68)
	여아	72	3.95(.67)
	전체	139	3.9(.67)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은 <표 V-2>와 같다.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1.29시간($SD = 1.0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주중에는 평균 0.91시간, 주말에는 2.23시간 동안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이정림 외, 2013)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주중 31분, 주말 40분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치이며, 김보라(2018)의 연구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평균 이용시간이 1.91시간, 평균 노출시간이 1.86시간으로 조사된 것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아($M = 1.34, SD = 1.15$)가 남아($M = 1.22, SD = 1.02$)보다 하루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더 많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V-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단위: 시간

		성별		전체 <i>M(SD)</i>
		남아 <i>M(SD)</i>	여아 <i>M(SD)</i>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주중	0.86(.87)	0.95(.97)	0.91(.92)
	주말	2.13(1.93)	2.31(2.13)	2.23(2.04)
	하루	1.22(1.02)	1.34(1.15)	1.29(1.09)

2.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 (연구문제2)

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양상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V-3>과 같다. 부모의 기능적 리터러시의 평균 점수는 4.14점($SD = .98$), 비판적 리터러시의 평균 점수는 4.28점($SD = .84$)으로 나타났다. 각 리터러시 간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비판적 리터러시가 기능적 리터러시보다 높았다($t = -3.45, p < .01$). 미디어 리터러시 평균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조금 그렇다’에 해당하는 4점과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5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바, 이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 부모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5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미디어를 비교적 잘 다루며 콘텐츠를 이해 및 생산할 수 있고, 미디어를 분석, 평가하고 콘텐츠의 의미,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양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기능적 리터러시의 평균 점수는 4.19점($SD = 1.10$), 어머니의 기능적 리터러시의 평균 점수는 4.10점($SD = 1.09$)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리터러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 점수 차이를 보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비판적 리터러시의 경우, 아버지의 평균 점수는 4.33점($SD = .97$),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4.26점($SD = .90$)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간 점수 차는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3>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

구분	<i>M(SD)</i>	<i>t</i>		<i>M(SD)</i>
기능적 리터러시	4.14(.98)	-3.45**	아버지	4.19(1.10)
			어머니	4.10(1.09)
비판적 리터러시	4.28(.84)		아버지	4.33(.97)
			어머니	4.26(.90)

** $p < .0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의 비판적 리터러시가 기능적 리터러시보다 높다는 연구결과(Wegmann et al., 2015)와 유사하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 세대로 디지털 시대에서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중산층 부모들은 컴퓨터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잠재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며(Facer et al, 2003),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부모들에 비해 인터넷을 더 빨리 접하고 사용한다(김은미, 2011)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별다른 차이 없이,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V-4>와 같다. 부모의 적극적 중재의 평균 점수는 3.55점($SD = .65$), 제한적 중재의 평균 점수는 3.60점($SD = .66$)으로 나타났다. 각 중재방식 간 평균점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들 간의 점수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평균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3점과 ‘조금 그렇다’에 해당하는 4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은 중간보다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양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적극적 중재의 평균 점수는 3.41점($SD = .85$),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의 평균 점수는 3.70점($SD = .72$)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가 높았다($t = -3.83, p < .001$). 제한적 중재의 경우, 아버지의 평균 점수는 3.40점($SD = .81$)이었고,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3.81점($SD = .71$)이었다. 제한적 중재에서도 어머니의 점수가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 -6.47, p < .001$).

<표 V-4>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점수

구분	$M(SD)$		$M(SD)$	t
적극적 중재	3.55(.65)	아버지	3.41(.85)	-3.83***
		어머니	3.70(.72)	
제한적 중재	3.60(.66)	아버지	3.40(.81)	-6.47***
		어머니	3.81(.71)	

*** $p < .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적극적 중재방식과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한계를 정하는 제한적 중재방식을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미디어중재가 유형별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조안나, 고영자, 2013)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각각의 중재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TV시청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관여도가 높았다(Van der

Voort et al., 1992)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대체로 일상 중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여하는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연구문제 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²⁾

먼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V-5>와 같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관리기술은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며($r = -.17, p < .05$), 학습기술도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17, p < .05$). 대인관계기술은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전체 점수와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7, p < .05$).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2, p < .01$).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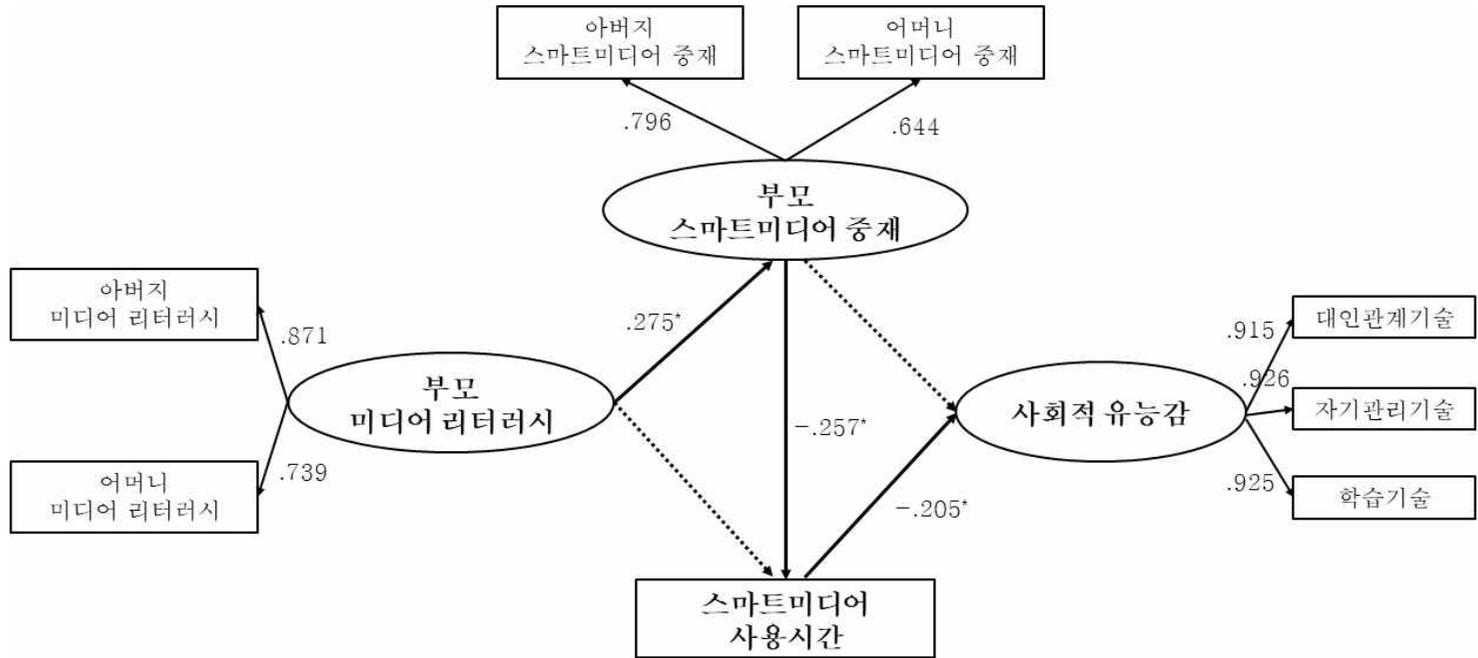
2)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인 '왜도 < 2, 첨도 < 4'(Hong, Malik, & Lee, 2003)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대인관계기술	1										
2. 자기관리기술	.85***	1									
3. 학습기술	.85***	.86***	1								
4. 사회적 유능감 전체	.96***	.95***	.94***	1							
5.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15	-.17*	-.17*	-.17*	1						
6. 부 미디어 리터러시	.06	.15	.12	.11	-.03	1					
7. 모 미디어 리터러시	.05	.10	.08	.08	-.04	.64***	1				
8.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06	.14	.11	.10	-.04	.91***	.90***	1			
9. 부 스마트미디어 중재	-.10	-.10	-.10	-.11	-.20*	.18*	.12	.17*	1		
10. 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01	.04	.06	.02	-.16	.18*	.23**	.23**	.51***	1	
11.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07	-.04	-.03	-.06	-.21*	.21*	.20*	.22**	.89***	.84***	1

* $p < .05$, ** $p < .01$, *** $p < .001$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Note. 숫자는 표준화된 계수이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 * $p < .05$.

<그림 V-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V-6>에 제시한 바와 같이 $\chi^2 = 16.402(df = 16, p > .05)$, TLI = .999, CFI = .999, RMSEA = .013 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본 자료를 적합하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16.402	16	.999	.999	.013

각 요인들과 그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는 <표 V-7>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275, p < .05$). 즉, 부모가 미디어의 기능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 분석, 비평하는 능력이 높은 경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중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적극적 중재에 영향을 미치고(Rasmussen et al., 2016), 부모의 리터러시가 높으면 자녀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권하지 않거나(Lou et al., 2010), 제한적 중재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Lee, 2013)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7, p < .05$). 이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를 적게 사용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가 자녀의 TV 시청 시간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Komaya & Bowyer, 2000), 부모가 제한적 중재를 할 경우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줄어들었다(Collier et al., 2016)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205, p < .05$). 즉, 유아의 스마트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TV를 오래 시청할수록 사회적 기술이 낮아졌다(Connors-Burrow et al., 2011)는

연구결과나 미디어 노출이 잦을수록 정서발달과 또래 관계에 문제를 겪는다(Hinkley et al., 2014)는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 유아들의 자기조절 능력이나 사회적 기술 등은 자연 환경을 탐색하고 또래 및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진다(Radesky et al., 2015). 이 연구의 대상유아들은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 주로 유튜브 영상이나 만화 등을 시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타인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제약을 받아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킬 기회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 간 또는 성인 간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반영하여, 추후 다양한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연구의 대상 유아들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실태의 특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미디어 사용실태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부모 응답에 따르면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절반 이상이 주로 스마트미디어를 가정에서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절반 이상은 자녀에게 방해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를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허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부모가 유아기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부모의 필요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V-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i>B(S.E.)</i>	β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231(.099)	.275*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044(.153)	.029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473(.226)	-.257*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 사회적 유능감	-.125(.117)	-.118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 사회적 유능감	-.118(.052)	-.205*

* $p < .05$

다음으로 변인 간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모형의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8>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대해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며($\beta = -.071, p < .05$),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53, 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매개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이 높아지며 이것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감소를 나타낼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매개로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이것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증가를 나타낼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과도한 미디어사용과 부적절한 미디어 노출을 차단시킴으로써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게 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공격성에 감소를 보인(조안나, 고영자, 2013; Fikkers et al., 2017)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표 V-8> 경로모형의 효과분해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i>B</i>	β	<i>B</i>	β	<i>B</i>	β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044	.029	-.109	-.071*	-.065	-.042
	→사회적 유능감	.000	.000	-.021	-.024	-.021	-.024
스마트 미디어 중재	→사회적 유능감	-.125	-.118	.071	.053*	-.069	-.065

Note. 간접효과의 유의수준은 신뢰수준 95% 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추정결과이며, 재표집 1000회 실시. * $p < .05$.

VI.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TV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개인 미디어의 특성이 강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변인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 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출생 후부터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유아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돕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세 유아의 부모 139쌍과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측정하였다. 교사에게도 질문지 조사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 수준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중재하는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인터넷 리터러시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이 부모 중재에 영향을 미친다(안정임, 2008; Rasmussen et al., 2016)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미디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용 중재를 할 수 있듯이(조연하, 배진아, 2010),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디어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 비평하고 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높을 경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확신있게 중재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미디어 중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부모 중재 역할의 확립을 위해서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 수준이 낮아진다. 이는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종류와 별개로 양적인 측면의 사용시간 증가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나 게임 사용시간이 또래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술과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nnors-Burrow et al., 2011; Prot et al., 2014)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유아가 TV에 노출되면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방해를 받게 되며(Kirkorian et al., 2009), 자기조절 능력이나 사회적인 기술은 자연 환경을 탐색하며 또래 및 양육자와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길러진다(Radesky et al., 2015)는 것을 고려하면,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또래 등 타인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킬 기회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중재할수록 유아는 스마트미디어를 적게 사용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행동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량을 통해서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TV 시청량, 인터넷 사용량 등 미디어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기존 선행연구(이숙정, 전소현, 2010; 이은미, 2002; Collier et al., 2016; Komaya & Bowyer, 2000)와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경험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함께 고려하였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최근 보급 및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의 사용 경험을 사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과 부모의 중재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질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성 발달의 관계에서 아버지 변인의 영향과 어머니 변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나 어머니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 등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을 주로 다루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의 변화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율이 증가(김영란 외, 2015; 김지원, 김낙홍, 2011)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포함하여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중재하는 양상은 어떠하며,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잘 다루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았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미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향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영향을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확인한 바,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관련한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스스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힘든 유아기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미디어 경험 확립과 사회성 발달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적절한 한계와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부모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관리 조절하는 양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미디어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 질문지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아이지만 부모의 기억에 의존하여 수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시간일지 기법이나 시간 측정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 부모는 다수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또한 높은 편이다. 거주지역과 부모의 소득, 학력 등의 가정환경에 따라 유아들의 미디어 사용 환경이나 미디어 이용 정도, 미디어 사용습관의 형성이 다르다(바른ICT 연구소, 2018; 이재은, 2017; Buckingham, 2000)는 연구결과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르므로 인해 개인, 가정, 지역 간에 나타나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기회의 차이는 흔히 정보격차로 설명 되는 바(안정임, 2006; 한국전산원, 2000), 다양한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이는 부모, 유아들 간의 정보격차 등을 반영한 후속연구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
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앞둔 5
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과 관련하여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
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 간의 구조적 경로를 살펴봄
으로써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관련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유능감 발달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스마트미디
어 사용경험이 유아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
다는 점, 그리고 부모의 중재 역할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미디
어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정, 김민정, 정미라 (2015). 아버지의 공감능력에 따른 양육참여가 만 1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107-113.
- 강현옥, 황혜원 (2013). 다문화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2(1), 101-1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곽아정 (2006).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 척도의 타당화 및 학습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 구순주, 최보가 (1996).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1), 107-120.
- 구현영, 김은정 (2015). 부모의 매체 사용과 교육 요구 및 자녀 지도가 아동의 매체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 21(2), 183-193.
- 구희정 (2013). 유아의 탄력성 및 기질이 인터넷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3, 201-220.
- 권성민 (2010).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들려주기 방법이 유아의 언어 및 사고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9(3), 31-49.
- 권연정 (2014). 만 2세반 영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9(1), 213-242.
- 권희경 (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79-98.
- 김나리, 조준오 (2013). 유아의 정보화능력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

- 육, 22(3). 37-51.
- 김민석, 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및 부모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 77-99.
- 김보라 (2018). *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 실태와 자기조절력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서희, 황성운 (2017).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력의 매개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5(1), 1-12.
- 김영란, 주재선, 김난주, 최진희 (2015). *생활시간조사를 통해본 가족시간 변화 추이 분석 연구*(연구보고 2015-66). 서울: 여성가족부.
- 김은미 (2011). 부모와 자녀의 인터넷 리터러시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5(2), 155-177.
- 김종훈,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문제행동 개인차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6), 390-410.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3).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교보문고.
- 김지원, 김낙홍 (2011). 영아기 자녀 아버지의 역할인식과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189-210.
- 김지현, 정지나 (2011). 유아의 위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15-24.
- 김형지, 정세훈 (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부모중재, 학교교육 및 심리적 반발심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1), 87-120.
- 김환남, 이선애, 이은경, 천재현, 김성희 (2014). 스마트미디어 노출 환경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4), 127-153.
- 남경희 (201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역할이 유아의 스마트

- 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3(1), 117-137.
- 남연정, 김희태 (2014). 유아의 마음이론 및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2, 165-186.
- 노준석 (2003). *미디어 이용과 몰입경험에 따른 수용자의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TV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류미향 (2014).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어머니 인식. *한국영유아보육학*, 86, 307-329.
- 바른ICT 연구소 (2018). *2017 스마트폰 이용행태 보고서*.
- 박소라 (2005).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4), 166-190.
- 박소영, 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 25-45.
- 박수연 (2013). *영아와 부모의 특성 및 육아유형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 박연정, 정옥분 (2010).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7, 37-54.
- 박정아, 현은자 (2018).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공격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2), 219-248.
- 박혜림, 이진희 (2014). 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주제환상극 놀이가 유아의 마음이론과 인지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3(1), 223-246.
- 방소영 (2013).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은모 (2014). 스마트미디어 활용능력 요인이 교과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성별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0(4), 621-650.
- _____ (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미디어 활용능력 요인과 교과태도 및*

-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1(2), 215-243.
- _____, 진성희 (201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폰 활용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4), 441-467.
- 손경희, 이대균 (2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언어교육이 유아의 언어 및 사고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5(3), 143-165.
- 신하나, 정세훈 (2018).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사회환경적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3), 5-50.
- 안라리 (2005). 만 5세 남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 전략.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61-81.
- 안정임 (2003). 한국에서의 TV시청중재 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6), 332-353.
- _____, (2006).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자 복지 정책적 함의. *한국언론정보학보*, 36, 78-108.
- _____, (2008). 인터넷 이용 중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6), 230-266.
- 이경순 (2006).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유아의 이해. *아동학회지*, 27(6), 235-248.
- 이수기, 이현경, 홍혜경 (2014).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현황과 게임 과몰입 경향성. *유아교육연구*, 34(3), 239-262.
- 이숙정, 전소현 (2010).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 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6), 289-322.
- 이은미 (2002). 부모의 시청지도가 초, 중생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방송학보*, 16(3), 397-421.
- 이은정 (2008). 구성주의 교사와 비구성주의 교사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54(2), 209-227.
- 이태영, 강문희 (2001). 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구

- 성 및 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21(3), 293-324.
-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 대책*(연구보고, 2013-1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은 (2017). 유아의 미디어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층적, 지역적 변인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9(3), 179-195.
- 이혜경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지각과 양육참여행동에 관한 연구: 이천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양옥승 (2006).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69-92.
- 이호분, 남정희 (2016). *아이 1학년 엄마 1학년*. 서울: 길벗.
- 임명희, 김성현 (2014). 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실태와 부모인식과 유아의 중독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4(4), 237-260.
- 임인택, 이선미 (2015). 초등학생 어머니의 스마트폰 리터러시가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4(1), 285-302.
- 임현주 (2017). 가족 상호작용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심리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7(6), 269-291.
- 정대현, 지성애 (2006). 유아의 또래 상호 작용, 유아-교사관계, 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3), 201-221.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2008). *인간발달: 발달 심리적 접근*. 서울: 교문사.
- 조숙인, 권미경, 이민경 (2017).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7-14.
- 조안나, 고영자 (2013). 가정 내 전자미디어 사용실태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24.
- 조연하, 배진아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정 내 미디어 이용 중재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3, 37-74.
- 최경순 (199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 아동학회지*, 14(2), 115-135.
- 박정아, 현은자 (2018).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공격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2), 219-248.
- 한국전산원 (2000).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
- 홍수민 (2011). *자기주도학습지원용 유아 멀티미디어북 스마트폰 앱의 설계 및 구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미, 문혁준 (2006).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2), 83-91.
- AAP COUNCIL ON COMMUNICATIONS AND MEDIA. (2016). Media and Young Minds. *Pediatrics*. 138(5), e20162591.
- Asher, S. R., & Taylor, A. R. (1981). Social outcomes of mainstreaming: Sociometric assessment and beyond. *Exceptional Education Quarterly*, 1(4), 13-30.
- Aufderheide, P. (1993).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Aspen Institute, Communications and Society Program, 1755 Massachusetts Avenue, NW, Suite 501, Washington, DC 20036..
- Baumeister, R. F., Vohs, K. D., & Tice, D. M. (2007). The strength model of self-contro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6), 351-355.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83-96.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_____ & Chou, C. (1987).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 Bickham, D. S., Hswen, Y., & Rich, M. (2015). Media use and depression: exposure, household rules, and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0*(2), 147-155.
- Bierman, K. L., & Montminy, H. P. (1993). Developmental issues in social-skill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r modification, 17*(3), 229-254.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uckingham, D. (2000). *After the death of childhood : growing up in the age of electronic media*. Polity Press.
- Christakis, D. A. (2014). Interactive media use at younger than the age of 2 years: time to rethink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guideline?. *JAMA pediatrics, 168*(5), 399-400.
- Chen, D. T., Wu, J., & Wang, Y. M. (2011). Unpacking new media literacy. *Journal on Systemics, Cybernetics and Informatics, 9*(2), 84-88.
- Clark, L. S. (2011).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21*(4), 323-343.
- Collier, K. M., Coyne, S. M., Rasmussen, E. E., Hawkins, A. J., Padilla-Walker, L. M., Erickson, S. E., & Memmott-Elison, M. K. (2016). Does parental mediation of media influence child outcomes? A meta-analysis on media time, aggression,

- substance use, and sexu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52(5), 798.
- Conrade, G., & Ho, R. (2001). Differential parenting styles for fathers and mother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3(1), 29-35.
- Connors-Burrow, N. A., McKelvey, L. M., & Fussell, J. J. (2011). Social outcomes associated with media viewing habits of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2(2), 256-273.
-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zzo, L. D., & Trost, M. A. (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38-446.
- Davis, J. F. (1993). Media literacy: From activism to exploration.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18-38.
- Dodge, K. A., Coie, J. D., & Brakke, N. P. (1982). Behavior patterns of socially rejected and neglected preadolescents: The roles of social approach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3), 389-409.
- Duncan, G. J., Dowsett, C. J., Claessens, A., Magnuson, K., Huston, A. C., Klebanov, P., ... & Sexton, H. (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28.
- Eastin, M. S., Greenberg, B., & Hofshire, L. (2006). Parenting the Internet. *Journal of Communication*, 56, 486 - 504.
- Facer, K, Furlong, J, Furlong, R, & Sutherland, R. (2003). *Screen play: children and computers in the home*. London: RoutledgeFalmer.
- Fikkers, K. M., Piotrowski, J. T., & Valkenburg, P. M. (2017). A matter of style? Exploring the effects of parental mediation

- styles on early adolescents' media violence exposure and aggress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0*, 407-415.
- Funder, D. C., & Block, J. H. (1983). Delay of gratification: Some longitudinal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6), 1198-1213.
- Guralnick, M. J. (1990). Social competence and early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4*, 3-14.
- _____ (1992). A hierarchical model for understandi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sues and strategies for intervention*, 37-64.
- Gutman, L. M., Sameroff, A. J., & Cole, R. (2003). Academic growth curve trajectories from 1st grade to 12th grade: Effects of multiple social risk factors and preschool child fac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9*(4), 777.
- Hinkley, T., Verbestel, V., Ahrens, W., Lissner, L., Molnar, D., Moreno, L. A., ... & Veidebaum, T. (2014). Early childhood electronic media use as a predictor of poorer well-being: a prospective cohort study. *JAMA pediatrics*, *168*(5), 485-492.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wang, Y., Choi, I., Yum, J. Y., & Jeong, S. H. (2017). Parental mediation regarding children's smartphone use: Role of protection motivation and parenting styl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0*(6), 362-368.
- Jensen, P. S., Mrazek, D., Knapp, P. K., Steinberg, L., Pfeffer, C., Schowalter, J., & Shapiro, T. (1997). Evolution and revolution

- in child psychiatry: ADHD as a disorder of adapt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12), 1672-1681.
-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Kayany, J. M. & Yelsma, P. (2000). Displacement Effects of Online Media in the Socio-Technical Contexts of Household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2), 215~229.
- Kirkorian, H. L., Pempek, T. A., Murphy, L. A., Schmidt, M. E., & Anderson, D. R. (2009). The impact of background television on parent-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80(5), 1350 - 1359.
- Koc, M., & Barut, E.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ew Media Literacy Scale (NMLS) for university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3, 834-843.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1), 236-254.
- Komaya, M., & Bowyer, J. (2000). College-educated mothers' ideas about television and their active mediation of viewing by three-to five-year-old children: Japan and the USA.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3), 349-363.
- Kucirkova, N. (2014). iPads in early education: separating assumptions and evidence. *Frontiers in psychology*, 5, 715.
- LaFreniere, P., Masataka, N., Butovskaya, M., Chen, Q., Auxiliadora Dessen, M., Atwanger, K., ... & Frigerio, A. (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3*(2), 201-220.
- Lauricella, A. R., Wartella, E., & Rideout, V. J. (2015). Young children's screen time: The complex role of parent and child facto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6*, 11-17.
- Lee, S. J. (2013). Parental restrictive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Effective for what and for whom?. *New Media & Society*, *15*, 466-481.
- Livingstone, S. (2009). *Children and the Internet*. Cambridge, UK: Polity Press.
- _____, & Helsper, E. J. (2008).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2*(4), 581-599.
- Loeber, R., & Schmalting, K. B. (1985). Empirical evidence for overt and covert patterns of antisocial conduct problems: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3*(2), 337-353.
- Lou, S.-J., Shih, R.-C., Liu, H.-T., Guo, Y.-C., & Tseng, K.-H. (2010). The influences of the sixth graders' parents' internet literacy and parenting style on internet parenting.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9*(4), 173 - 184.
- Lynn, S. C. (2011).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21*, 323-343.
- Mashburn, A. J., & Pianta, R. C. (2006).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readin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151-176.
- McClelland, M. M., Acock, A. C., & Morrison, F. J. (2006). The impact of kindergarten learning-related skills on academic

- trajectories at the end of elementary 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4), 471-490.
- McDermott, P. A., Green, L. F., Francis, J. M., & Stott, D. H. (2000). *Preschool Learning Behaviors Scale*. Philadelphia: Edumatic and Clinical Science.
- Merrell, K. W. (1993). *Using behavioral rating scales to assess social skills and antisocial behavior in school settings: Development of the School Social Behavior Scales*. School Psychology Review.
- Nathanson, A. I. (1998). *The immediate and cumulative effects of television mediation on children's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 _____ (1999). Identifying 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ediation and children's aggression. *Communication Research*, 26(6), 124 - 143.
- _____ (2001). Parent and Child Perspectives on the Presence and Meaning of Parental Television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2), 201-220.
- _____ (2002). The unintended effects of parental mediation of television on adolescents. *Media Psychology*, 4(3), 207-230.
- _____ & Yang, M. S. (2003). The effects of mediation content and form on children's responses to violent televis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1), 111-134.
- Neuman, S. B. (1995). *Literacy in the television age*. Norwood, NJ: Ablex.
- Nigg, J. T. (2006). *What causes ADHD?: Understanding what goes wrong and why*. Guilford Press.
- Nikken, P., & de Graaf, H. (2013).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 friends' and parental mediation of adolescents' media use and their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11), 1696–1707.
- _____ & Jansz, J. (2006).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videogame playing: A comparison of the reports by parents and children.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1(2), 181–202.
- _____ & Schols, M. (2015). How and why parents guide the media use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1), 3423–3435.
- Parke, R. D. (2002). Fathers and families.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Vol. 3, Being and becoming a parent (pp. 27–73). Hillsdale, NJ: Erlbaum.
- Pianta, R. C. (1999). *Enhanc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leck, J. H., & Masciadrelli, B. P.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S residential fathers: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 Potter, J. (2002). *Media literacy*. Thousand Oaks, CA: Sage.
- Prot, S., Gentile, D. A., Anderson, C. A., Suzuki, K., Swing, E., Lim, K. M., Horiuchi, Y., Jelic, M., Krahe, B., Liuqing, W., & Liao, A. K. (2014). Long-term relations among prosocial-media use,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5(2), 358–368.
- Radesky, J. S., Schumacher, J., & Zuckerman, B. (2015). Mobile and interactive media use by young children: the good, the bad, and the unknown. *Pediatrics*, 135(1), 1–3.
- Rasmussen, E. E., Shafer, A., Colwell, M. J., White, S., Punyanunt-Carter, N., Densley, R. L., & Wright, H. (2016). Relation between active mediation, exposure to Daniel Tiger's Neighborhood, and US preschoolers' social and emotional

- development.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10(4), 443–461.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 Roseberry S., Hirsh-Pasek K., & Golinkoff R. M. (2014). Skype me! Socially contingent interactions help toddlers learn language. *Child Development*, 85(3), 956–970.
- Rubin, K. H., Booth, C., Rose-Krasnor, L., & Mills, R. S. (1995).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 Schaefer, E. S. (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5.
- Shin, W., & Lwin, M. O. (2017). How does “talking about the Internet with others” affect teenagers’ experience of online risks? The role of active mediation by parents, peers, and school teachers. *New Media & Society*, 19(7), 1109–1126.
- Shuler, C. (2009). *Pockets of potential: Using mobile technologies to promote children's learning*.
- Stevens, J. (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trasburger, V. C., & Wilson, B. J. (2002). *Youth and media: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or lurking dangers?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Media*.
- Terras, M. M., & Ramsay, J. (2016). Family digital literacy practices and children's mobile phone use. *Frontiers in psychology*, 7, 1957.
- Trilling, B., & Fadel, C. (2009).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John Wiley & Sons.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Valkenburg, P. M., Krccmar, M., Peeters, A. L., & Marseille, N. M. (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3*(1), 52 - 67.
- Van der Voort, T. H. A., Nikken, P., & Van Lil, J. E. (1992). Determinants of parental guidance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6*, 61-74.
- Verenikina, I., & Kervin, L. (2011). iPads, digital play and pre-schoolers. *He Kupu*, *25*(5), 4-19.
- Vygotsky, L. (1978). Interaction between learning and development. *Reading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3*(3), 34-41.
- Walker, H. M., & Hops, H. (1976). Increasing academic achievement by reinforcing direct academic performance and/or facilitative nonacademic respon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8*(2), 218.
- Walter, J. L., & LaFreniere, P. J. (2000). A naturalistic study of affective expression, social competence, and sociometric statu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1*(1), 109-122.
- Wegmann, E., Stodt, B., & Brand, M. (2015). Addictive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can be explained by the interaction of Internet use expectancies, Internet literacy,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3), 155-162.

Zimmerman, F. J., Christakis, D. A., & Meltzoff, A. N. (2007).
Television and DVD/video viewing in children younger than 2
year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1*(5),
473-479.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설문지

<어머니용>

본 설문지는 어머니용으로 어머니께서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방식 및 미디어 사용 기술과 미디어 관련 이해 능력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인 목적 외에는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책임자 외의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머니의 솔직한 답변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모든 문항에 답하여 주셔야만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아동학 석사과정 김 지 선 올림
연락처 :

지도교수 : 이 강 이

- 아래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이용 관련 질문입니다. 여기서 스마트미디어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아 이패드, 갤럭시탭 등)를 의미합니다.
- 조사응답 시정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아래 질문에서 나오는 "자녀"란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말합니다.

문1)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대체의 종류를 표시해주시십시오.

미디어 대체	보유 여부	개수	자녀 사용여부
스마트폰	1. 있다 2. 없다	---대	1. 사용 2. 미사용
태블릿PC	3. 있다 4. 없다	---대	1. 사용 2. 미사용

문2) 자녀가 언제부터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였는지 표시해주시십시오.

최초 이용 시기					
12개월 이하	13-24개월 이하	25-36개월 이하	만 3세	만 4세	만 5세

문3) 자녀가 최근 1개월 동안 스마트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지 표시해주시십시오.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문4) 자녀의 주중(월~금), 주말(토~일) 및 공휴일 일일 평균 스마트미디어 이용 시간은 어떠합니까?

주중(월~금) 일일 평균 이용 시간	평균 ____시간 ____분
주말(토~일) 및 공휴일 일일 평균 이용 시간	평균 ____시간 ____분

문5)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접근 방법은 주로 어떠합니까?

1.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2. 가족(부모,형제)에게 허용 여부를 묻고 허락을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
3. 전적으로 가족(부모,형제)이 자녀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문6) 자녀는 스마트미디어를 혼자 사용합니까?

1. 혼자 사용하는 편이다. → 문6으로 이동
2.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편이다.
→ 문6-1)로 이동

문6-1)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할 때 주로 누구와 함께 이용합니까?

1순위	2순위
-----	-----

1. 부모
2. 친척(사촌 등)
3. 형제
4. 친구
5. 기타(_____)

문7)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이용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우리 집
2. 다른 사람(친구 등)의 집
3. 카페 또는 식당 등
4.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
5. 공공시설(도서관, 우체국 등)
6.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
7. 개인용 승용차
8. 기타(_____)

문8) 자녀가 평일 중 가정에서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 준비시간에
2.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3. 잠자기 전에
4. 식사 중에
5. 시간에 관계치 않고 때때로

문9)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서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또래와의 교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 자녀에게 방해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3. 자녀를 달래기 위해
4. 정보검색 등 지식습득을 위해
5. 교육적 목적을 위해
6. 기타(_____)

문10)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한 3가지의 이용 빈도와 1회 이용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구분	번호 (보기 참고)	이용 빈도				이용 시간 분단위 기입
		월1회	주1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1순위						
2순위						
3순위						

문 10) 보기 항목	
자료 및 정보 획득	1) 검색
	2) 일반적인 웹서핑
	3) 카메라, 사진첩
여가	4) 게임
	5) 만화
	6) 영화
	7) TV프로그램(DMB)
	8) 음악(노래)
	9) 영상시청(유튜브 등)
	10)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등)
커뮤니케이션	11)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12) 커뮤니티(카페, 클럽)
교육/학습	13) 교육용 콘텐츠

문11) 현재 유아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료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1.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
2. 과거에 이용했지만,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
(과거에 이용한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3. 현재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설문 문항은 뒷장에 계속됩니다

- 아래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어머니의 중재방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기서 **스마트미디어**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탭 등)를 의미합니다.
- 조사용답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아래 질문에서 나오는 "자녀"란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말합니다.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할 때 도와준다.	1	2	3	4	5
2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해준다.	1	2	3	4	5
3 자녀에게 특정한 콘텐츠가 왜 좋은지 설명해준다.	1	2	3	4	5
4 자녀에게 특정한 콘텐츠가 왜 안 좋은지 설명해준다.	1	2	3	4	5
5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준다.	1	2	3	4	5
6 자녀와 스마트미디어의 재미있는 기능 또는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1	2	3	4	5
7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규칙을 정한다.	1	2	3	4	5
8 자녀에게 정해진 시간 이상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 못하게 한다.	1	2	3	4	5
9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한다.	1	2	3	4	5
10 자녀가 특정한 콘텐츠는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1	2	3	4	5
11 자녀가 이용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확인한다.	1	2	3	4	5
12 자녀가 이용하는 스마트미디어에 유해물 차단 앱(스마트보안관, 통신사 별 안심 서비스, 엑스키퍼 등)을 설치한다.	1	2	3	4	5
13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이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1	2	3	4	5

- 아래는 어머니의 미디어 사용 기술과 미디어 관련 이해 능력을 묻는 문항입니다. 여기서 **미디어는 스마트미디어 뿐만 아니라 TV, 컴퓨터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 아래의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이용할 수 있다.	1	2	3	4	5
3 인터넷에서 계정과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	1	2	3	4	5
4 컴퓨터나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글, 이미지, 동영상 등)를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2	3	4	5
5 컴퓨터나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글, 이미지, 동영상 등)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할 수 있다.	1	2	3	4	5
6 공유된 콘텐츠에 댓글을 남기거나 평가(평점, 추천) 할 수 있다.	1	2	3	4	5
7 기본적인 실행 도구(파일 전송, 하이퍼링크 등)를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8 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특색적인 요소를 인지할 수 있다.	1	2	3	4	5
9 미디어가 가진 서로 다른 기능(커뮤니케이션, 오락 등)을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5
10 미디어 콘텐츠가 상업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5
11 디지털 콘텐츠를 만든 사람(방송사, 신문사, 크리에이터 등), 제작 유형(광고, 게임 등)이나 제작 목적(정보전달, 오락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5
12 미디어 콘텐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알 수 있다.	1	2	3	4	5
13 인터넷 예절, 개인정보보호 등 도덕적인 기준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14 어떤 콘텐츠가 믿을 만한지, 그리고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15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결과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설문지

<교사용>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지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연구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평소 유아가 기관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과
놀이할 때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인 목적 외에는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책임자 외의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모든 문항에 답하여 주셔야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아동학 석사과정 김 지 선 올림
연락처 :

지도교수 : 이 강 이

- 아래의 문항은 **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상황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자 외의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 평소 유아의 행동을 잘 떠올려 보시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세요.

이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협력한다.	1	2	3	4	5
2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수월하게 전환한다.	1	2	3	4	5
3 격려해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한다.	1	2	3	4	5
4 필요한 경우 다른 친구를 도와준다.	1	2	3	4	5
5 그룹 토의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6 다른 친구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이해한다.	1	2	3	4	5
7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대응한다.	1	2	3	4	5
8 교사의 지시를 잘 듣고 따른다.	1	2	3	4	5
9 자신이 하는 활동에 친구들을 잘 초대한다.	1	2	3	4	5
10 따라야 할 지시사항이 이해되지 않을 때 교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되묻는다.	1	2	3	4	5
11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주나 능력이 있다.	1	2	3	4	5
12 다른 친구들을 잘 포용한다.	1	2	3	4	5
13 주어진 과제나 임무는 스스로 한다.	1	2	3	4	5
14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활동을 끝낸다.	1	2	3	4	5
15 필요한 경우 친구와 적절히 타협한다.	1	2	3	4	5
16 교실 내 규칙을 따른다.	1	2	3	4	5
17 교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1	2	3	4	5
18 필요할 때 교사와 친구에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19 여러 친구들과 골고루 어울린다.	1	2	3	4	5
20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1	2	3	4	5
21 친구와 대화를 시작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능숙하다.	1	2	3	4	5
22 친구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	1	2	3	4	5

23	교사에게 지도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반응한다.	1	2	3	4	5
24	화가 났을 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5
25	친구들이 이미 하고 있는 활동에 잘 합류한다.	1	2	3	4	5
26	리더십이 있다.	1	2	3	4	5
27	기관 내의 여러 장소(예: 도서실) 별로 기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5
28	친구가 잘 한 것을 인정해 준다.	1	2	3	4	5
29	필요한 경우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1	2	3	4	5
30	친구들이 같이 놀고 싶어하는 아이이다.	1	2	3	4	5
31	참여성이 있다.	1	2	3	4	5
32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1	2	3	4	5

■ 아래는 선생님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또는 적절한 응답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p>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p> <p>2. 선생님의 나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 _____ 세</p> <p>3.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얼마입니까?
 _____ 년 _____ 개월</p> <p>4. 현재 선생님의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동과 교사 수는 몇 명입니까?
 교사 _____ 명 / 아동 _____ 명</p> | <p>5.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④ 국립 유치원
 ② 민간 어린이집 ⑤ 병설 유치원
 ③ 직장 어린이집 ⑥ 단설 유치원
 ⑦ 사립(민간) 유치원
 ⑧ 기타: _____</p> <p>6. 교사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_____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_____ ②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_____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_____ ④ 대학원 재학 이상</p> |
|--|---|
-

혹시 빠뜨린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years-old's smart-media experience and social competence:

Focus on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and smart-media mediation

Kim, Ji Su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the effects of smart-media (smartphones, tablet PCs) use on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 Preschoolers' smart-media use was examined with three factors: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level and

parents' smart-media mediation level.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1. How are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interpersonal skills, self-management skills, academic skills) and smart-media use time?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among these variables?
2. How are parents' media literacy (functional literacy, critical literacy) level and smart-media mediation (a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level?
3. How i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level, parents' smart-media mediation level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Subjects included 139 father-mother dyads of five-years-old preschool children and 23 teachers from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and smart-media mediat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mart-media use time according to gender.

Second, parents' critical literacy level was higher than functional literacy level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media literac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ctive mediation and their restrictive mediation. Mothers' active mediation level and restrictive mediation level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fathers'.

Third, parents' media litera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smart-media mediation. Parents with higher media literacy levels showed higher levels of smart-media mediation. Parents' media literacy had indirect effects on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through parents' smart-media mediation.

Fourth,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ocial competence. Children with longer smart-media usage time showed lower social competence. Parents' smart-media mediation affecte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indirectly through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ive-years-old's social competence,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and smart-media mediation. Also, the current study confirmed that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and parents' smart-media mediation affecte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arental roles in mediating and regulating use of smart-media to promote preschoolers' healthy social development.

keywords : smart-media, media mediation, media literacy, social competence

Student Number : 2016-21690